

서평

이와오 카즈시, 이케다 타쿠미 (편),
『티벳의 역사와 사회』 상하, 2021
(岩尾 一史·池田 巧(編)
『チベットの歴史と社会』 上下, 2021)
(Eds. Iwao Kazushi, Ikeda Takumi.
The History and Society of Tibet. 2 vols., 2021)

최경진
도쿄대학 특임연구원

일본의 티벳학 연구는 메이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이지 정부의 신불(神佛) 분리와 폐불훼석(廢佛毀釋) 정책에, 당시의 불교계는 크게 흔들렸다. 여기서 종래의 일본불교에 대한 자기반성과 함께 불교옹호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근대화를 상징하는 서구사회로 사절단과 유학생을 파견하는 사업도 이에 속했다. 서구 사회의 ‘불교학’을 도입하여 근대적 종교로서 불교를 확립하려는 목적이었다. 예를 들어 옥스포드대학의 막스 밀러 교수의 제자였던 난조분유(南條文雄, 1849-1927), 타카쿠스 준지로(高楠順次郎, 1866-1945) 등은 귀국 후 인문학의 한 분야로서 근대불교학의 시작을 이끌었다. 특히 난조는 밀러 교수에게서 중국을 통해 티벳으로 가서 산스크리트 사본을 구해오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그 영향을 받아 직접 티벳 탐험을 실현한(혹은 시도한) 사람은, 이노우에 엔료(井上門了, 1858-1919)가 설립한 철학관(哲學館, 지금의 토요(東洋)대학)의 학생이었던 카와구치 에카이(河口慧海, 1866-1945)와 노미 유타카(能海

寛, 1868-?)였다. 또한 난조가 마침 청에 머물고 있었을 때, 그는 티벳 대장경을 일본으로 옮기려던 테라모토 엔가(寺本婉雅, 1872-1940)를 돕기도 했다. 일본의 티벳학 연구의 첫걸음이었다.

카와구치 등은 일본 티벳학 제1세대라 불린다. 즉 앞서 말한 카와구치, 노미, 테라모토, 그리고 아오키 분교(青木文教, 1886-1956), 타다 토간(多田等觀, 1890-1956)은 각자 조금은 다른 사정에 의해서, 하지만 티벳불교의 원전 연구라는 공통의 목표를 좇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티벳행을 선택한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공헌으로 지금의 토쿄대학, 토요분코(東洋文庫), 토호쿠(東北)대학, 오타니(大谷)대학, 소지지(総持寺), 류코쿠(龍谷)대학, 코야산(高野山)대학 등 일본 각지의 연구 기관에 티벳 대장경 사본이 보관되어 있고 (일부는 소실되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일본 티벳학 제2세대 학자들의 카탈로그 제작과 세밀한 연구가 이어졌다. 그들은 제1세대 학자에게 직접 훈련받은 이들로, 야마구치 즈이호(山口瑞鳳), 사토 히사시(佐藤長), 나가오 가진(長尾雅人), 야마구치 스스무(山口益), 하타노 하쿠유(羽田野狛猷), 이나바 쇼주(稻葉正就) 등이다.

그 후 일본 티벳학은 제1세대와 제2세대의 공헌을 기반으로, 개별적 현지 조사가 증가했고, 특정 티벳인 계세의 도움으로 티벳 불교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분야로는 중관, 인식론·논리학, 밀교 연구가, 인물로는 사카판디타, 총카파 등의 문헌학적 연구가 주를 이루며 사상사적 고찰이 가능하게 되었다. 때로는 인도불교학과 공존하며, 때로는 인도불교학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독립된 연구분야로서 티벳불교학을 보존, 확장해 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 「카담전집」 등을 시작으로 신출자료가 대량으로 출판되었고 필드워크가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지역과 주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특히 요즘은 일본 국내에서 학제간 공동연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티벳의 시와 문학에 대한 연구회에는 언어학 분야는 물론, 그 외에 문화인류학, 역사학, 불교학 등 다양한 분야의 티벳 관련 연구자들이 참가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학제간 연구를 행한다. 앞으로 이 제3세대 티벳학자들이

실현할 일본의 티벳학은 이전 세대의 것과는 다를 것이며, 티벳학의 시야 확장, 방법론의 다양화에 따라서 티벳불교학도 변화할 것이다. 이 책은 이미 국제학계에서 티벳학을 이끌고 있고 또한 앞으로 이끌어 갈 일본의 젊은 석학들과 중견 학자들이 각자 전공 분야의 최신 연구를 가볍게 엮어낸 것으로, 앞서 말한 최근 두드러진 일본 티벳학의 양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많은 훌륭한 단일 저자의 연구서가 있음에도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서문에서 편집자인 이와오 카즈시(岩尾一史)가 강조하고 있듯이, 이 책은 개론서와 연구서의 중간 즈음에서 가교 역할을 한다. 일본의 티벳학의 성장 과정은 출판 당시 화제가 되곤 했던 연구 입문서 혹은 개론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즉, 야마구치 츠이호 『티벳(チベット)』(上下, 도쿄대학출판회, 1987/1988), 나가오 가진 외 (편) 『티벳불교(チベット仏教)』(이와나미강좌 동양사상, 제11권, 1989), 오키모토 카즈미(沖本克己, 편집위원) & 후쿠다 요이치(福田洋一, 편집협력)의 『수미산의 불교세계(須弥山の仏教世界)』(신아시아불교사 시리즈9, 2010)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위의 책 모두 당시 티벳불교학을 이끌던 석학들이 모여 친절하고 치밀하게 엮은 ‘개론서’였다. 그에 비해 이 책 『티벳의 역사와 사회』는 친절하지 않아 개론서라 할 수 없고, 날카로우며 참신하지만 연구서라 하기엔 자유롭다. 그러나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 책은, 학제적·분야횡단적인 일본 티벳학의 전통적인 성격을 유지하면서 일본 티벳학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독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이 책은 상·하권으로 나뉘어 있고 총 21장(상권 1~12장, 하권 13~21장)과 17편의 짧은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역사편, 종교편, 사회편, 언어편으로 분야가 분리되어 있으나, 각각의 장의 내용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집필자 개인의 전공적 특성이 반영되어 자주성이 강하다. 각 컬럼은 대체로 4페이지 전후 분량으로, 집필자들의 부전공 연구 분야에 관한 테마가 주를 이룬다. 하권 말미의 〈문헌 안내〉는 이 책에서 망라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강하고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독자를 위해 원전 자료와 그에 대한 연구성과물, 그리고 초학자를 위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열거한 것이다. 그러나 권위적인 저서

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우선시하기 보다는 집필자들이 실제로 연구 중에 참조하고 있는 것을 위주로 하여 실용성을 높였고, 각 자료에 대해 짧은 설명을 더하여 초학자들도 접근하기 쉽도록 했다. 이어서 <참고 자료>는 ‘티벳 문자의 로마자 전사(轉寫)와 발음 표기’와 ‘티벳 지역 지도와 지명 데이터 모음’을 제공한다. 후자에 책 속 부록으로 첨부된 지도는 집필자들이 수차례 논의한 결과 만들어진 것으로, 그 PDF 파일이 이 책의 출판사인 린센쇼텐(臨川書店)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다 (<http://www.rinsen.com/books/tibetarea.htm>).

본 서평에서는 역사와 종교에 관련된 상권만을 다루기로 하고, 사회와 언어에 관련된 하권에 대해서는 본 글 말미에 첨부한 목차(한글역)를 참고하길 바란다.

역사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의 개론서에서는 자료 부족으로 역사 서술에서 공백이 있거나, 불교와 세속의 역사가 단절된 채로 편협한 정보에 만족할 수 없었던 부분을 이 책은 보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티벳역사는 특정 종파에 속한 승려가 저술한 불교사에 의거한 부분이 많아, 문헌 성격상 종교적인 면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시각의 한계를 부인할 수 없었고, 정치·외교면에 관해서는 주로 몽골어, 만주어, 한문 사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티벳어 자료가 대거 증가하고 있고 제각기 다른 시대를 전공하는 연구자들도 다양하게 배출되어, 불교 승원 밖 세속의 역사를 엿볼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이 책의 편집자는, 전체적인 내용의 통합성과 역사적 연결성보다도, 각 장의 집필자 개개인의 연구분야, 특히 동양사 속에 비취진 티벳의 역사를 우선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티벳불교 개론서와는 달리, 이 책은 각 종파의 불교사가 결여되어 있으며, 반면에 각 종파가 외부 정권의 권위와 함께 흥망성쇠했던 정치사에 치중된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

역사편 첫 장인 제1장 「고대의 티벳」에서 이와오 카즈시는 본론에 들어가 기에 앞서 티벳 고대사 연구의 특징이자 한계의 원인을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티벳의 고대사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난하고 어려운 연구다. 첫째로 ‘고(古) 티벳어 문헌’ 즉, 돈황 문서 등의 중앙아시아에서 출토된 문서 사료와 비석

이나 목간(木簡), 종(鐘)이나 토기 등에서 발견된 아주 단편적이고 한정된 정보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12세기 이후 성립된, 극단적으로 불교적(교파적)인 ‘고전 티벳어 사료’를 토대로, 그야말로 불교라는 ‘두꺼운 커튼’ 뒤에 가려진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가려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오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종래의 불교적 해석에 입각한 고대 티벳 불교사의 틀을 벗어나, 가능한 한 역사적인 사실에 집중하고 있다.

그 전까지 씨족 단위로 분단되어 있던 티벳을 처음으로 통일한 것은 뿌겔 씨족이다. 그들은 ‘첸포(btsan po)’라는 칭호를 쓰며 국왕의 신성성을 강조하고 초자연적인 힘으로 제사의식을 주도했다. 이들은 동맹과 서약을 현대사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다. 예를 들어 송첸감뵤왕과 문성공주의 혼인도 혼인관계를 통한 동맹의 일환이었다. 9세기에는 당, 위구르, 남조(南詔) 3개국과 평화적인 관계를 맺고 동유라시아에서 외교적 주도권을 쥐었다. 그러던 중에 842년, 당시 첸뵤였던 다르마우둠이 암살당한 사건을 계기로 통일 제국이 와해되었다. 이후 첸뵤가 연속해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첸뵤의 권위가 실추됨에 따라, 민중의 반란이 일어났다. 더이상 뿌겔 씨족에 의한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에 다달았고 후예들은 티벳 각지로 흩어져 소국을 일으켜 세웠지만, 그 후 통일 시대가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티벳불교사 속에서 이 고대 티벳 왕국 시대, 혹은 불교전파 전기(前期)는 주로 관음보살의 화신으로서의 송첸감뵤의 불교 관련 업적, 삼예사원의 논쟁, 그리고 다르마우둠의 파불과 암살 등으로 요약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와 같이 이와오는 시대적·정치적 정황을 바탕으로 그 일련의 사건들을 재고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비불교도적이며 세간살이에 초점을 둔 시점은 뒤를 이은 역사편의 모든 장에서 얻을 수 있었다.

제2장 「황제가의 실추와 불교의 부흥」에서 이우치 마호(井内真帆)는 고대 티벳 왕국의 쇠퇴와 함께 암흑기에 들어섰던 불교가 부흥하는 시기부터, 그와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종파불교의 등장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종래의 티벳불교사에서는 각 종파의 종교사적인 면에 집중하고, 고대 왕족의

후예들의 정치외교적 활동에 대해서는 생략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에 비해 이장에서 이우치는 고대 왕족의 후손들이 티벳 각지로 흩어져 새롭게 건국하는 과정과, 그 곳에서 불교가 수용되는 모습을 서술하여, 소위 ‘분열기’라고만 알려졌던 역사적 공백을 매꾸고 있다. 842년, 다르마우둠왕이 암살당한 후, 그의 두 아들 움펜과 우승이 후계자 싸움을 벌였고, 그 후로도 이 두 가문에서 파생된 후예들의 영토싸움이 한동안 지속되었다. 움펜 계통에 대해 전하는 문헌은 부족한 반면, 우승 계통에서 대해서는 비교적 세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우승 계통은 다시 키데니마운과 티타시첵빠뵐 계통으로 나뉘었는데, 전자가 티벳 서부아리 지역에 자리를 잡아 구게-푸랑 왕국이 탄생했고 이 왕국에 대해서는 『아리 왕정기』에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티벳 불교 후전기의 시작을 이끌었던 예세우(속명 코르레)왕과 장츄우왕은 이 우승-키데니마운 계통의 후예다. 이들의 공헌으로 아티샤의 불교전파가 가능할 수 있었고, 왕가에서 많은 티벳인 번역승 및 학승을 금전적으로 지원했다. 이는 이 후에 티벳불교 사상의 기반을 마련한 학자 집단인 카담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한편, 티타시첵빠뵐 계통의 후예들은 중앙 티벳의 야르룽가(家)와, 동북지방의 청당(靑唐)왕국을 이루었다. 이우치는 이어서 카담파 성립사를 간략히 서술하고, 카담파 성립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불교계와 세속권력의 관계를 지적한다. 신출자료가 점차로 공개됨에 따라 이러한 종파와 세속권력 간의 관계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카담파 라텡(rwa sgreng) 승원과, 10세기부터 13세기 초까지 약 2세기간 존재했었던 서하(西夏) 왕국과의 밀접한 관계도 최근 밝혀진 사실이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몽골정권부터 명, 청에 이르기까지의 제국의 황제들과 티벳불교와의 관계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불교학자로서 간과하기 쉬운 종파불교의 민낯, 특히 달라이라마 정권이 설립 초기에는 외부의 군사력을 빌려 티벳 사회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제3장 「몽골 정권·명조 중국과의 접촉과 티벳 사회의 변용」에서 야마모토 메이시(山本明志)는, 티벳 각지에 분산된 각 씨족들의 지원을 받아 불교교단

(혹은 씨족교단)이 조직되었던 13세기부터, 달라이라마 정권 출현 직전까지를 다루고 있다. 최근, 간쑤성 안서유림굴 등에 남겨진 서하불교의 벽화나 카라호토 유적에서 출토된 서하 시대의 불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로 티벳불교가 서하인의 사회에 전파되었다는 점, 그리고 서하의 불교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1227년, 몽골이 서하를 멸망시킨 후, 몽골인도 티벳불교를 접하게 되었다. 티벳 지역의 침입과 통치를 맡았던 오고타이 칸의 차남인 고텐이 사카판디타와 맺었던 시주(施主)-귀의처(貴의處) 관계를 시작으로, 그 후 쿠빌라이 칸과 팍파의 시주(제왕)-귀의처(제사帝師)의 관계가 확립되었다. 이 관계성은 역대 칸들의 정통성과 그들을 배후로 둔 불교교단의 지역사회에 대한 지배력 강화 및 종교적 중추성을 보장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갖는다. 이는 18세기경까지 종파 구분을 떠나 계승되고 변질을 감당하면서도 유지되었다. 아마모토는, 이러한 몽골의 침입과 몽골 조정을 무대로 한 티벳 승려들의 정치적 활동의 기록 속에 카담파 승려는 거론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11세기부터 상푸승원을 중심으로 흥성했던 카담파였지만, 13세기 중반에는 기세가 꺾여 쇠퇴기에 접어드는 과정에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게 되는 일면이다. 사카파가 정치적 우위에 서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이미 교학과 정치적인 면에서 사카판디타가 티벳불교의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티벳불교를 대표해서 몽골로 떠났던 것인지, 아니면 그가 몽골 조정 안에서 국사로서 리더십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그의 출신 종파인 사카파가 카담파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는지, 전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몽골 제국을 등에 업은 사카파가, 그리고 그 후 몽케 칸의 시대에는 카르마파가, 토곤 테무르의 시대에는 팍모두파가 군사력·정치력을 강화시켰을 뿐 아니라 저명한 불교 승려를 배출했던 것도 사실이다.

제4장 「달라이 라마 정권 성립 전후의 티벳과 동방 유라시아」에서 이케지 리 요코(池尻陽子)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말까지, 겔룩파 즉 달라이라마 정권이 티벳을 장악해 가는 과정을 정리했다. 불교학계에서는 그 이름도 유명한 겔룩파의 종조 총카파이지만, 그의 겔룩파가 티벳역사 속에서 정치적 중심 세

력으로 균립하게 된 것은 몇 세대를 지나 16세기 이후에서야 가능했고, 이 과정에서 티벳을 둘러싼 동유라시아의 외부세력의 지원이 불가결했다. 이 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소남감초와 알탄 칸이 역사적 회전을 성사시키고 여기서 알탄 칸은 소남감초에게 ‘달라이라마’ 칭호를, 소남감초는 알탄 칸에게 ‘전륜성왕’의 칭호를 부여하며 서로의 정통성과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했던 장면이다. 이케지리는, 이는 13세기 쿠빌라이 칸과 팍파의 관계를 밑그림으로 하는 ‘재연행동’이라 지적하며, 시대와 혈통을 초월한 전생(轉生) 제도는 이렇게 몽골의 왕통과 권위를 확립시키고, 동시에 그간 사카파가 이루어냈던 종교적 업적과 권위를 겔룩파로 이양하게 했다고 해석했다. 한편, 그 후에도 한동안 중앙 티벳에서는 창 지역의 왕권을 배후세력으로 하는 카르마파와, 투메트군의 힘을 빌린 겔룩파의 치열한 군사적 대립이 이어졌다. 결국 1637년, 오이라트 네 씨족 중 코슈트부를 이끄는 구시 칸이 달라이라마 5세 측의 요청에 따라 티벳을 군사적으로 평정했다. 이후 달라이라마 5세는 종교적 원수(元首)로서 달라이라마 정권을 수립하고, 구시 칸은 압도와 감을 지배하며 스스로 ‘티벳 왕’으로서 균립했다. 즉 초기의 달라이라마 정권은, 구시 칸이라는 종주, 구시 칸이 임명한 섭정 소남랍텐이라는 실질적 권력행사자, 그리고 이념적 대표자로서의 달라이라마 5세, 이러한 서열로 구성된 것이었다. 1650년대 중반, 구시 칸과 섭정이 잇따라 사망한 후, 달라이라마 5세는 주변 세력을 일신하여 ‘달라이라마’의 권력을 강화시켰다. 이로써 ‘위대한 5세’의 업적이 실현가능하게 되었다.

제5장 「달라이 라마의 즉위를 둘러싼 분쟁과 칭조의 영향력의 시작」에서 코마츠바라 유리(小松原ゆり)는 18세기 칭조의 티벳 침공 이후 칭조의 티벳에 대한 통치이념과 지배구조의 성립을 다루었다. 특히 최근 연구에 의하면, 칭조의 황제는 중화세계에서는 유교적 덕치(德治)의 주체자인 ‘중화황제’로서, 만주와 몽골의 부족세계에서는 부족들을 통합하는 ‘칸’으로서, 몽골과 티벳의 불교세계에서는 불교의 수호자인 ‘문수보살의 화신’으로서 스스로 연출하고, 이로써 각 세계의 지배자로서 자신을 정당화시켰다. 근대까지 이어진 티벳에

대한 청조의 위치를 상징하고 있어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건륭제가 스스로 문수보살의 화신인 ‘보살왕’이라 자칭하며 탕카를 제작하거나, 조정에서는 티벳 승려에게 이례적으로 편의를 봐주는 등, 그의 일련의 행적은 그가 단지 달라이라마의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몽골을 회유하려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티벳불교에 심취했었음을 시사한다. 티벳 내전과 구르카 전쟁을 거치면서 청조의 티벳에 대한 지배구조가 고착화함에 따라, 티벳불교계에 대한 청조의 지배권도 더욱 분명해졌다. 그 실태는 달라이라마나 판첸라마의 환생자를 확정할 때 네충 신탁에 의지하는 것을 금지하고(부분적인 관여는 인정했다), 청조가 하사한 금병(金瓶)을 사용한 뽑기 형식의 ‘금병제첨(金瓶掣籤)’을 시행했던 사실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제도로 설치하기는 했지만, 반드시 금병제첨 제도를 통해 환생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었다. 실제로 금병제첨을 통한 환생자 선정이 행해진 경우는 달라이라마 10세, 11세, 12세, 판첸라마 8세, 9세 등이었고, 달라이라마 9세와 13세 때는 탐색팀과 네충 신탁에 따른, 즉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제6장과 제7장은 19세기 초 이후 현대까지의 티벳의 정치적 상황과 사회를 이야기한다. 제6장 「티벳과 근대세계」에서 코바야시 료스케(小林亮介)는 19세기 초부터 1950년대까지의 티벳 역사를 외국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티벳을 둘러싼 제국들의 세력 다툼의 한 가운데에서 티벳의 독립을 주장하고 법적으로 승인받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달라이라마 13세의 행적을 서술했다. 티벳의 근대는, 19세기 이후 빠르게 격변하는 국제 질서와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난 가치관과 각국의 위치적 변화의 한 가운데에서 흔들리던 시대였다. 코바야시는 티벳의 근대사를 알기 위한 티벳 쪽 자료가 현저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면밀히 조사한 결과를 간결히 정리하고 있다.

제7장 「현대 티벳 사회의 형성과 전개」에서 오카와 켄사쿠(大川謙作)는 1951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통치하의 티벳 현대사를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개관하고, 달라이라마 14세의 후계자 문제와 티벳의 향후 동향을 전망했다. 그 중에서도 긴장감 넘치는 부분은 역시 1950년대일 것이다. 망명정부로서의 티

벳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1950년대는, 소위 ‘17조협의’를 통해 티벳이 공식적으로 중국 통치하로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티벳정부(달라이라마 정권)가 공존했던 특이한 시대였다. 또한 머지않아 이러한 공존조차 점점 붕괴해 가는 시대였다. 17조협의에 기재된 티벳의 혁명 및 자치권을 두고, (오오카와의 표현에 따르면) ‘동상이몽’적인 해석 때문에 수년간 양자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중국에는 1959년 3월16일, 달라이라마 14세가 노르부링카를 탈출했고, 이를 전후로 중국과 티벳인 간의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결국 티벳이 중국의 직접행정구역하로 들어가게 되면서 티벳은 무력에 의해 공식적으로 주권을 상실했다. 이렇게 격렬한 갈등으로 뒤덮인 1950년대는 티벳 망명정부의 설립으로 막을 내렸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티벳은 항상 중국의 정치적 동향에 좌지우지되며 끊임없이 흔들려왔다. 이러한 역사를 돌이키며 오오카와는 ‘중국이 불러일으키는 외재적인 영향에 무기력하게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독자적으로 맞서는 티벳 사회와 문화가 가진 강인한 주체성’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종교편에서는 티벳불교의 사상 연구와 그를 위한 서지학적, 방법론적인 정보를 제시한다. 역사편보다도 각 장 간의 연결성이 더욱 현저하게 저하되었고, 독립된 논문들을 모아놓은 연구잡지의 성격이 짙어 편집 의도를 알기 힘들다. 종교편 서문에서 카노 카즈오(加納和雄)는 이렇게 된 세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첫째로 기존의 개론서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고 둘째로 집필자들의 다양성을 살려 참신한 시점(視點)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티벳불교 ‘개론’에 대한 회의감이다. 즉 신출자료의 최근 연구성과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재조명한 결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티벳불교 개론은 한정된 자료 속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제한된 시점으로 배제·통합된 단편적인 사실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저자에 의해 혹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삭제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와 사상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에서는 티벳불교의 ‘개론’을 뛰어넘는, 혹은 오히려 ‘개론’의 윤곽선을 넘나드는 동적(動的)인 티벳불교의 일면을

제공하고자 했다.

종교편 첫 장인 제 8장 「인도불교 중관파의 티벳으로의 전개」에서 쿠마가이 세이지(熊谷誠慈)는 인도 및 티벳의 중관학파의 파생과 분류를 정리하고, 티벳불교와 티벳불교사상을 흡수해 변용된 빈교의 독자적인 교학체계에서 중관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사상적 전개가 이루어졌는가를 다루고 있다. 시대별 혹은 사상가별로 중관학파의 분류와 그 출처를 조사하는 데는 유용한 자료이지만, 쿠마가이도 말미에 밝히고 있듯이, 이 글은 2016년에 출간된 『티벳불교(チベット仏教)』에 투고한 쿠마가이의 기존 논문을 가필하고 수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이 책의 전체적인 흐름과 취지를 고려했을 때 아쉬움이 남는 글이었다.

제9장 「티벳불교 사상사의 재건축을 향하여—신출자료 카담전집—」에서 카노는, 2000년대, 티벳불교 연구자들의 충격과 주목과 기대를 받으며 등장한 신출자료 「카담전집」에 대해 다루고 있다. 「카담전집」이 출판되기까지의 과정과, 그것이 티벳불교사상 연구에서 갖는 의미와 점유하는 위치, 그리고 「카담전집」 수록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세계 각지의 연구자들의 소개, 향후 카담파 연구의 전망에 대해 서술한다. 「카담전집」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세밀하면서도 잘 정리된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카담파 연구에 대한 카노의 통찰을 제시하고 있어, 카담파 연구자로서 내용이 충만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카담전집」은 데폰승원이나 개인 소장물에서 발견된 사본 중 카담파로 분류되는 저자들, 또한 아티샤와 그 주변 인물들의 작품을 선별하여 펠릭스 고적연구소의 노력으로 출판되었다. 총 4집, 합 120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폐차의 형태로 되어있다. 대부분이 우메체로 쓰여져 있으며, 아주 드물게 우첸체로 컴퓨터 입력한 텍스트도 있다. 다양한 형태의 서체, 철자법, 행간 노트가 그대로 남아있고, 뿐만 아니라 풍부한 내용의 간기(刊記)를 통해 11세기 학승들의 생생한 모습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카노는, 「카담전집」이 사본학 및 서체학적으로도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카노는 각 권에 수록된 작품의 주제를 간단히 정리하고 린첸상뵤와 옥로덴세랍,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저서

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모든 카담파 관련 문헌이 이 「카담전집」에 반드시 수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10장 「겔룩파—논리·실천·시(詩)—」에서 보이는 네모토 히로시(根本裕史)의 겔룩파에 대한 이해는, 총카파의 학문관을 담은 시(詩)—분석적 사고의 기반이 되는 논리학, 경전과 논서를 기반으로 하는 실천론, 그리고 시학(詩學)과 수사학(修辭學) 지식에 기초한 시문학, 이 세가지를 제시하는 시—를 통한 것이다. 네모토는 이 장에서 먼저 겔룩파 사상 연구사를 개관한다. 일본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총2군으로 분류하는데, 제1군으로는 산스크리트 원전이 희소했던 근대 불교학의 형성기에, 인도불교학 연구를 위한 도구로서의 겔룩파 연구를 들었다. 이 당시에는 산스크리트 원전 연구와 이를 보강하고자 진행되었던 티벳역 문헌에 대한 기초연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겔룩파 문헌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제2군으로는, 인도불교 연구를 벗어나 겔룩파 그 자체로 시선을 돌려, 총카파의 사상과 그의 후계자들이 발전시킨 겔룩파의 교학 연구에 집중한 선행연구를 열거한다. 로버트 써먼, 제프리 홉킨스와 그의 제자들, 조지 드레이퍼스, 톰 틸레만, 오가와 이치조, 출팁 켈상, 마츠모토 시로, 요시미즈 치즈코, 오노다 슌조, 후쿠다 요이치 등 지금은 세계 티벳 학회의 석학으로 알려진 그들이 전성기에 이루어낸 연구를 열거하고 있다. 네모토는 다음으로 겔룩파의 사상적 특색에 대해서 고찰하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역시 총카파의 시문학이다. 네모토는 총카파가 훌륭한 시인이었음을 지적하며, 그의 전집에 속한 비유적인 표현이 풍부한 작품을 소개한다. (네모토는 총카파의 중관사상이 집약된 『연기찬(緣起讚)』을 번역한 바 있다. 『총카파의 사상과 문학—연기찬을 읽다—』, 2016년) 또한 총카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직제자들과 후대 겔룩파의 학승들이 무상정등각을 성취하기 위해 시로써 삼보를 찬양하는 문화가 정착했으며, 이러한 문화는 겔룩파의 불교사상과 시문학이 융합하여, 인도에서 티벳으로 전해진 종교문화 및 문예문화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제11장 「티벳어 불전의 제상(諸相)」에서 오노다 슌조(小野田俊藏)는 티벳 대

장경의 전래사와 일본의 티벳학이 추진해 왔던 방대한 규모의 티벳 대장경 정리작업을 서술한다. 티벳 대장경의 가계도와 분포·확산에 대해서는 지금도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수집할 수 있는 한 다양한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했고 장외문헌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그러나 티벳 대장경의 형성기에 대한 정보와 연구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는 오노다가 집필 완료한 2020년까지 학계에 보고된 바를 바탕으로 한 글이라는 점에서, 이 글 또한 향후(다른 집필자에 의해서라도)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그러한 의미에서, 이 글은 이미 다른 곳에 발표된 오노다의 기존 논문—「티벳의 교전(チベットの教典)」(스에키 후미히토末木文美土, 시모다 마사히로 下田正弘, 호리우치 신지堀内伸二 편집 『불교 사전 仏教の事典』 중 수록), 「티벳 대장경(チベット大蔵経)」(『신편 대장경, 성립과 변천(新編大蔵経—成立と変遷)』중 수록)도 함께 참조할 것을 추천한다.

제12장 「닝마파의 세계관과 실천론—룽첸빠 〈휴식삼부작〉이 설하는 족첸 수도론의 마인드풀네스—」(마르크-앙리 데로슈 저, 네모토 히로시 일역)에서 데로슈가 말하는 ‘마인드풀네스’는 산스크리트의 smṛti, 티벳어의 dran pa, 한 역의 ‘념(念)’을 가리킨다. 이 장에서 데로슈는, 닝마파의 족첸 수행 과정에서 언급되는 dran pa의 번역어로서 ‘정념’, ‘억념’, ‘마인드풀네스’ 등을 문맥에 따라 바꿔 사용하고, ‘마인드풀네스’는 때때로 ‘자각(自覺)’이나 ‘정지(正知)’를 가리키는 개념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족첸에서 말하는 dran pa는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데로슈의 ‘마인드풀네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은 때때로 난해했다. smṛti에 주의력과 기억력이라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은 학계에 이미 알려진 바이지만, 데로슈는 이에 더해, 룽첸빠의 사상에 의거해서 ‘회심(回心)’, 즉 의식의 방향전환의 역할도 마인드풀네스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족첸에서는 모든 생활이 다양한 단계의 마인드풀네스에 지배되어야 하며, 가장 이상적으로는, 우리의 인식은 주관과 객관의 이원성을 초월한 명지(明知, rig pa)의 삼매와 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지는 이원론적인 ‘심(心, sems)’ 및 확산적 사고(희론戲論)와 관련된 ‘지(知, blo)’를 초월

한 특별한 인식이며, 분석·고찰할 수 없고 형언 불가능한 지혜를 말한다. 마인드풀네스는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심’을 ‘명지’로 전환시키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족첸은 이러한 명지의 직관, 그리고 명지의 분명한 인식이 생활 속 모든 활동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행이다. ‘환신(幻身)요가’ 단계에서는 정념(dran pa)을 통해서 인식 대상이나 경험된 내용이 환상이라고 알아채고, ‘광명(光明)요가’ 단계에서는 억념(dran pa)에 의해 모든 것이 꿈과 같음을 상기(dran pa)시킨다. 이렇게 해서 단련된 마인드풀네스(정념, dran pa)를 통해 명지의 재인식으로 나아가고, 또한 명지의 재인식을 달성한 후에도 이를 유지하는 데에 마인드풀네스가 필요한 기능이라고 한다.

제13장 미야케 신이치로(三宅伸一郎)의 「부처(佛)의 가르침으로서의 빈교」는 기대를 뛰어넘어 흥미진진한 글이었다. 편집자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 책 상권 역사편 제1장부터 차례대로 마지막 장까지 읽어 온 독자라면 여기서 드라마틱한 반전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편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편도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하듯 불교의 입장이 반영된 것일 수 밖에 없다. 이제 13장은 상권 전체를 통해 서술된 티벳의 역사와 티벳의 불교에 대해서, 이제 빈교의 입장에서 재고하게 한다. 달라이라마 14세로 상징되는 현재의 권력의 중심인 겔룩파, 그리고 그 배경으로서 티벳불교의 역사, ‘티벳불교세계(チベット仏教世界)’라는 학술어가 성립할 정도로 요란하고 대단했던 주변국들의 티벳불교에 대한 열망.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즉 빈교의 시점에서 본다면, 외래 신 문물을 이용한 통치자의 왕권 강화와 그러한 왕권을 등에 업은 티벳불교의 티벳 사회와 신앙세계 장악, 그 과정에서 피할 수 없었던 토착신앙의 소외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 미야케는 빈교에 관해서 어원부터 시작해 빈교의 시조라 알려진 셴랍미보라는 인물을 둘러싼 전설, 빈교의 정의와 고대 기록, 티벳 불교사와 얽히고 설켜 빈교의 역사, 불교의 종교전통과 교학을 도입해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빈교의 종교사상을 정리했다. 반전의 감동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 두고, 제목에 대한 해명으로 서평을 마무리하겠다. 빈교는 불교 전래 이전의 토착신앙적인 빈교와, 셴랍미보를 시조로 하며 많은 경전을 보유하고 교학

체계를 성립한 융동빈(g.yung drung bon)으로 나뉜다. 그런데 후자의 셴랍미보라는 자는, 빈교의 경전 속에서는 성불한 자, 즉 부처라고 전해진다. 따라서 빈교 입장에서는 ‘불교’라는 것이 부처(셴랍미보)의 가르침 그 자체인 빈교를 떠나 별개로 존재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즉 제목의 ‘부처의 가르침’은 셴랍미보의 가르침을 말한다. 미야케는 이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서두에 거론한 다음, 이 장 전체를 통해 ‘부처의 가르침’으로서의 빈교를 서술하고 있다.

일본의 티벳학 제3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지금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 집필자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최근 학제간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이 책의 공동편집자인 이케다가 주도하고,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이루어진 ‘티벳-히말라야 문명의 사적(史的) 전개’의 학술적 연구’라는 연구회였다. 이 책은 그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더 심화된 버전으로는 이 책의 모체라고도 할 수 있는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 공동연구 보고서’ 『티벳-히말라야 문명의 역사적전개』(교토대학인문과학연구소, 2018년), 그리고 Gateways to Tibetan studies (A Collection of Essays in Honour of David P. Jackson on the Occasion of his 70th Birthday. Ed. Volker Caumanns et al., 2 vols. Hamburg: Dept. of Indian and Tibetan Studies, Universität Hamburg, 2021)를 추천한다. 한편, 이 책이 상하권 셋트로 풍성하게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컬럼 게재에 그쳤던 티벳불교미술 분야에 관해서는 모리 마사히데(森雅秀)의 『티벳불교미술과 만달라(チベットの仏教美術とマンダラ)』(나고야대학출판회, 2011)를 추천한다.

목 차

• 상권 [역사편·종교편]

- 서문···이와오 카즈시(岩尾一史)
- 역사편
 - 역사편 서문···이와오 카즈시

- 제1장 고대의 티벳···이와오 카즈시
- (컬럼) 티벳의 명칭···타케우치 츠구히토(武内紹人)
- 제2장 황제가의 실추와 불교의 부흥···이우치 마호(井内真帆)
- (컬럼) 고대 티벳의 점술···니시다 아이(西田愛)
- 제3장 몽골 정권·명조 중국과의 접촉과 티벳 사회의 변용···야마모토 메이시(山本明志)
- 제4장 달라이 라마 정권 성립 전후의 티벳과 동방 유라시아···이케지리 요코(池尻陽子)
- (컬럼) 역대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이케다 타쿠미(池田巧)
- 제5장 달라이 라마의 즉위를 둘러싼 분쟁과 청조의 영향력의 시작···코마츠바라 유리(小松原ゆり)
- (컬럼) ‘오차(熬茶)’와 중앙 유라시아의 불교세계···이와타 케이스케(岩田啓介)
- 제6장 티벳과 근대세계···코바야시 료스케(小林亮介)
- (컬럼) 티벳의 화폐···코마츠바라 유리
- 제7장 현대 티벳 사회의 형성과 전개···오오카와 켄사쿠(大川謙作)
- 역사편 참고문헌
- 종교편
 - 종교편 서문···카노 카즈오(加納和雄)
 - 제8장 인도불교 중관파의 티벳으로의 전개···쿠마가이 세이지(熊谷誠慈)
 - 제9장 티벳불교 사상사의 재건축을 향하여 —신출자료 카담전집—
···카노 카즈오
 - (컬럼) 고대 티벳의 종교···니시다 아이
 - 제10장 겐룩파 —논리·실천·시(詩)—···네모토 히로시(根本裕史)
 - (컬럼) 티벳의 성지 순례···무라카미 다이스케(村上大輔)
 - 제11장 티벳어 불전의 제상(諸相)···오노다 슌조(小野田俊蔵)

- (컬럼) 데르게 파르캉···이케다 타구미
- 제12장 닝마파의 세계관과 실천론—룽첸빠 〈휴식삼부작〉이 설하는
축첸 수도론의 마인드폴네스—···마르크-앙리 데로슈 (네모토 히로
시 일역)
- (컬럼) 티벳의 미술 개설···오오바 에미(大羽惠美)
- 제13장 ‘부처(佛)’의 가르침으로서의 빈교···미야케 신이치로(三宅伸
一郎)
- (컬럼) 천문력(曆)과 길흉 점치기···오노다 슌조
- 종교편 참고문헌

• 하권 [사회편·언어편]

○ 사회편

- 사회편 서문 ···코니시 켄고(小西賢吾)
- 제14장 때묻음과 대역의 사상 —티벳 민간 신앙 서설—···무라카미
다이스케
- (컬럼) 티벳인의 식생활과 티벳 음식···이우치 마호
- 제15장 승원과 종교의례···코니시 켄고
- (컬럼) 동티벳, 삶 속의 불교 부흥···메모토 유스케(日本裕介)
- 제16장 예능을 통해 파악하는 티벳 난민 사회의 다이내미즘···야마
코토 타츠야(山本達也)
- (컬럼) 티벳 의학의 전개···나가오카 케이(長岡慶)
- 제17장 ‘생명 있는 것’을 통해 보는 티벳인의 생활세계—목축과 생업
커뮤니티—···벳쇼 유스케(別所裕介)
- (컬럼) 부탄의 역사와 불교···쿠마가이 세이지
- 사회편 참고문헌

○ 언어편

- 언어편 서문: 티벳학과 언어학의 사이에서···이케다 타구미

- 제18장 티벳어의 역사···타케우치 츠구히토
- (컬럼) 티벳어의 목간(木簡)···타케우치 츠구히토
- 제19장 티벳어의 문법을 동적(動的)으로 보다···호시 이즈미(星泉)
- 제20장 티벳어 방언을 부감적으로 보다···에비하라 시호(海老原志穂)
- (컬럼) 종교와 민족을 초월한 티벳어의 화자(話者)들···에비하라 시호
- 제21장 유형론과 계통론에서 본 티벳어···이케다 타쿠미
- (컬럼) 돈황 출토의 상송어 문헌···타케우치 나오토
- 언어편 참고문헌
- 문헌 안내
- 참고 자료
- 끝내며···이케다 타쿠미
- 색인
- 집필자 일람